

교환학생 보고서

소속전공	기계시스템	학 번	201**966	성 명	이원규
주 소		휴대전화		메일주소	
파견국가	독일	파견대학	예나	파견학기	2016/1학기
소요경비	대략 600~700만원				
주거	예나응용과학대학 Fahschule 기숙사				
룸메이트	이집트에서 석사학위를 얻기 위해 온 학생과 시리아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학생				
기숙사 내 한국인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온 교환학생 3명 (나를 제외한)				
파견대학 정보	튀링겐 주 예나지역에 있는 대학				
파견대학 국제 교류부서	교환학생을 위해 한국인 tutor 한명을 제공해주어 비자, 보험, 은행 등 독일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도와주었음.				
주말 및 여가활동	주말엔 주로 공원에 가서 일광욕을 즐기거나 학교에서 배운 전공공부를 함.				
멘토 또는 교류도우미	tutor덕분에 독일에서 생활하는데 크게 문제 될 일이 없었다.				
전공	일부 과목은 나의 전공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어서 수업에 참여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지만 대부분의 과목이 전공과 관련이 없어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느낌.				
수업 스케줄	평균 하루에 3~4시간정도 수업을 들음.				

학생할인 관련	독일 학생증(Toska) 지참 시 튀링겐 주 (독일 내 한 지역)에서 교통수단이 무료.
ISIC카드 활용	부모님께 받은 돈을 인출하는 용도로만 사용. 독일학교에서 학생증을 발급해주기 때문 에 따로 혜택을 본 것은 없음.
영어공부	6개월간 생활하면서 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 영어가 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외 국인과 만나면 대화하기 전부터 생기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영어에 대해 흥미가 생겼음.
여행	포르투갈, 스페인, 파리, 체코, 독일 내 지역
교통	기숙사에서 버스 정류장이 매우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어 시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 에 매우 편리함.
날씨	겨울에는 매우 추웠지만 여름엔 비가 많이 왔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덥지 않았음.
해외인턴	1학기 교환학생에게는 해외 인턴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음.
추신	내가 독일에서 생활을 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람들이 삶에 여유가 있다는 것이였다. 그 중 하나가 날씨가 좋은 날에 모두들 밖에 나와 햇빛을 쬐며 맥주를 마시 고 돛자리를 들고 나와서 잔디에 눕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의 식하지 않고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너무 남을 의식하며 살아 왔었다는 것을 느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난 내면적으로 한층 더 성숙해졌다는 것을 느 꼈고 독일에서 경험한 많은 것들을 절대 잊지 못 할 것이다.
보완점	외국에서 들었던 학점에 비해 인정해주는 학점이 낮은 점을 제외하고는 없음.